



환경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3. 3. 23.(목) 12:00 (금요일 조간)	배포 일시	2023. 3. 22.(수)
담당 부서	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지영 (044-201-6750)
		담당자	사무관 임호주 (044-201-6760)

지역기반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2곳 추가지정

- 전북 및 경남 지역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-

- 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지자체의 환경보건 기반 구축 및 정책 지원을 위해 전북과 경남 지역에 각각 1곳의 권역형 ‘환경보건센터’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.
- 환경부는 이번 신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2곳에 대한 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수행 여건 등을 평가*하여 전북지역에 국립전북대학교, 경남지역에 국립경상대학교를 선정했다.
 - * 환경·보건·지역 등 분야별 전문가 등 평가단(6인) 구성
- 이번 지정으로 지자체의 환경보건정책 지원을 위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9곳*에서 11곳으로 확대됐다.
 - * 기존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지역: 서울, 인천, 부산, 울산, 대전, 충북, 충남, 강원, 제주
-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환경보건정책 수립과 추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.
- 지역별 환경보건정책의 기반 구축을 위해 △환경성질환 및 유해인자 조사·감시, △건강영향조사 및 청원처리 지원, △환경보건정책수립 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.

○ 또한, 지역별 환경보건 쟁점에 대해 지자체, 전문가,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체계를 마련하고, 민감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 및 홍보를 수행하는 등 환경보건정책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가교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.

□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“지역별 맞춤형 환경보건정책 기반 구축과 다양한 환경보건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권역형 환경보건센터가 필요하다”라며, “전국 시도에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확대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붙임 환경보건센터 지정·운영 현황. 끝.



□ 사업 개요

- 환경보건법 제26조(환경보건센터의 지정·운영)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조사·연구와 예방·교육을 위하여 환경보건센터를 지정·운영
- (역할) △환경성질환 원인규명 및 조사·연구, △지역 환경보건 이슈 대응, △환경보건 및 환경성질환에 대한 위해소통, △환경보건 DB구축, △전문인력 육성, △환경성질환 예방·관리 교육·홍보
- (대상) 국·공립 연구기관, 대학교, 국·공립병원, 민간병원 등

□ 환경보건센터 지정·운영 현황

(‘23.03월 기준)

번호	분야	센터명	유효기간	사업 내용
1	권역형	강원	강원대학교병원	지역별 환경보건 이슈 대응 및 건강영향조사 지원 등
2		충남	순천향대천안병원	
3		서울	서울대 의과대학	
4		인천	가천대학교	
5		대전	대전대학교	
6		부산	동아대학교	
7		울산	울산대학교병원	
8		충북	충북대학교병원	
9		제주	제주대학교	
10		전북	전북대학교	
11		경남	경상대학교	
12	정책 지원형	환경 독성	순천향대구미병원	생활화학제품 등 화학물질과 건강영향과의 관계 조사연구 등
13		환경 빅데이터	한국환경연구원	환경보건정보 구축분석예측 및 정책자료 제공 지원 등
14		연구 정보	서경대학교	환경보건 분야 연구정보 구축 및 정보관리, 콘텐츠 개발 등
15		건강 빅데이터	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	건강 빅데이터 구축, 환경성질환별 에피소드 표준화 등